

광주시 '탄소거래소' 유치 나섰다

저탄소 시범도시 추진기획단 구성 수목원 조성·천연가스 버스 확충

광주시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거래소 유치'에 나섰다.

탄소거래소는 국가나 회사 등에 탄소배출 한도를 부여하고, 이 한도를 넘겨 배출하려면 잉여 탄소배출권을 가진 회사의 배출권을 사게 만드는 등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수료로 운영된다. 국내 배출권 시장 규모는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최중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시범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은 23일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관련 신성장 동력 산업,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등 오는 7월부터 추진할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저탄소 시범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한 뒤 정부가 오는 2011년 탄소 의무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한 데 맞춰 탄소거래소 유치가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지난 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거래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대폭 보강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심에 숲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수목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은 '폐기물 재료화 ECO-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 일대 100만여평을 광물수목원에 건널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며 시민 여가활동 장소와 생태탐방 코스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무소각장, 위생처리장 등 광주시내 7개 환경·위생시설도 생태 숲으로 조성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체된다. 시는 기존 569대인 천연가스 버스를 2010년 1천153대, 2015년 2천대까지 늘리고 자전거로도 대폭 확충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11년까지 3%, 2020년 5%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의 협약 체결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저탄소형 도시계획·조례 수립 ▲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측산분뇨 자원화 ▲산림가꾸기 사업 ▲하수 재이용 및 빗물 이용 확대 등 사업도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탄소 시범도시 건설 계획은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며 "내실 있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추진해 기후변화 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예방치학교실 창설 20돌 기념 행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과장 김동기)은 오는 24일 오후 5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예방치학교실 창설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7시부터는 동문과 지역의료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종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타츠오 와타나베 일본 오카야마대학 치과부 명예교수를 초청해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1988년 개설된 예방치학교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구강 보건사업 개발과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세계 차 홀데코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미자차를 사용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

세계 명차 맛보세요 DJ센터서 전시회

광주에서 세계 각국의 이름난 차(茶)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에 따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명품 차와 테이블 인터리어를 전시하는 '세계 차 홀데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리랑카, 인도 등 7

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 150여개 부스에서 각국의 명차와 홀데코 전시품 100여가지를 선보인다.

또 '꽃차'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꽃차 특별관을 비롯해 각종 다구(茶具) 등이 마련된 '세계 차 존'에서 시음 행사도 열린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는 2천원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위장 전입자 2,400명 시 "2주내 이전 앓을땐 주민등록 직권말소"

광주시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위장 전입자가 모두 2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내 91개동 9만3천여가구를 특별 방문조사한 결과 414가구 2천441명이 위장 전입자로 확인됐다.

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가 807명이 적발돼 최대였으며 광산 711명, 동구 434명, 서구 401명, 남구 88명 순이었다.

조사대상은 동일번지 내 3가구 이상 및 동일가구 내 3인 이상 동거하는 9만3천159가구로 광주지역 전체가구

(50만5천여가구) 가운데 5곳중 1곳 꼴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일부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위장 전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 정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했다"며 "2주 이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 공고 등을 거쳐 직권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도로 1km당 가로수 72그루

대도시중 대구 이어 두번째로 많아...생육도 양호

광주의 도로 1km당 가로수는 72.4그루로 전국 대도시 중 두번째로 많고 생육상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발전연구원 여론조사 연구위원이 통계청과 산림청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도로 1km당 가로수 양(2006년 기준)은 72.4그루로 대구(73.7그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은 34.4그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로수 생육상태도 다른 대도시

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진단됐다.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은행나무의 경우 연평균 생장량이 1.29cm로 대전(1.14cm), 서울(0.95cm), 부산(0.82cm) 보다 양호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광주의 가로수 총량은 9만7천627그루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였다. 이는 광주시의 도로 연장이 1천349km로 서울(8천500km·27만6천863그루)의 6분의 1, 부산(2천715km·11만6천419그루)의 2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면적 1km당 가로수 양에서도 광주는 3천223루로 서울(3천711그루)과 대전(3천589그루)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도시녹화와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량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광주의 가로수 식재량은 4천394그루로 울산(1만1천711그루), 인천(9천855그루), 대구(9천773그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2007년말 현재 광주의 가로수는 11만778그루 늘어났다.

/정후식기자 who@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합법편입/특수편입/사범대편입/한예대편입/국사대편입

매일 공개강의 10시/2시/4시/6시

성원대학교 대학편입학원

전주 성원대학교 308호

ANYCHE CHAIR

거품과 합재로 마감으로인 해서 한번 생산하면-불변해서!

Representing various and various chairs for your business.

Introducing the new chair series through various and simple design.

Anyche

正統日食 미도

확장기업

일본의 대표적 요리 100여종을 맛있게, 최고 품질의 재료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미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일본의 대표 요리 100여종을 맛있게, 최고 품질의 재료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미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정식/주말특선

특정공제비 제외된정식가격	14,000
정식가격	15,000
미도정식	21,000

총매장 50여개 (주요도시 50여개)

3호점인원 10명(주요도시 10명)

3호점인원 10명(주요도시 10명)

☎ 234-0001